

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과 시사점

* 이 자료는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발표한 「경쟁력후퇴의 요인은 무엇인가(2016.9.30)」의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최근 일본은 기업경영자들의 자신감 결여로 이노베이션의 순위가 크게 저하되어 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음
-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기업들인 만큼, 그 주역인 기업 경영자들의 자신감 결여는 이노베이션의 침체,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
- 따라서 기업들의 의식개혁, 자신감회복 그리고 행동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, 관련 정책 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

□ 일본의 국제경쟁력 순위 세계 8위로 후퇴

- 세계경제포럼(WEF)이 발표한 최신판(2016-2017) 국제경쟁력 순위에 의하면, 일본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2015년의 6위에서 8위로 떨어짐

□ 비즈니스 세련도와 이노베이션, 일본 국제경쟁력의 기둥

- 국제경쟁력은 12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일본이 이전부터 높은 순위를 유지해온 3대 요소로는 ①시장규모, ②비즈니스의 세련도, ③이노베이션 등을 들 수 있음
- 특히 비즈니스의 세련도는 2008년 이후 매년 3위 이내의 순위를 유지해왔음
 - 비즈니스의 세련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「풍부하고 질 높은 서플라이어의 존재」, 「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강점으로 하는 경쟁우위성」, 「세련된 생산 프로세스」 등 일본의 모노즈쿠리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되어 있음
- 비즈니스의 세련도와 함께 고순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요소가 바로 이노베이션임

□ 최근 이노베이션의 순위 저하

- 그러나 2016년에는 이노베이션의 순위가 크게 저하되어 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주범이 됨
- 2006년에는 1위에도 랭크된 적이 있으나 2016년에는 8위로 추락하여 아베 정권에 큰 실망을 안겨 주었음
 - 왜냐하면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인 「일본재흥전략」에서 일본의 이노베이션 순위를 2017년까지 세계 제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임

- 이노베이션과 전요소생산성(TFP)상승률과의 상관관계를 보면, 전요소생산성은 노동 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이 주어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, 기술혁신 등 이노베이션에 의해 향상됨
- 실제로 이노베이션과 전요소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, 양자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
- 일본의 경우도 이노베이션 스코어, 전요소생산성 상승률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, 이노베이션 순위의 상승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상승률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임

□ 이노베이션 능력 저하의 주된 요인

- 문제는 왜 일본의 이노베이션 순위가 크게 저하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임
- 7개 이노베이션의 구성인자 중 특히 일본의 이노베이션 능력 순위가 2015년의 14위에서 2016년에 21위로 크게 후퇴
- 국제경쟁력 순위는 구성항목에 의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한 스코어를 산출한 것과, 각국의 기업경영자에 대한 설문 조사(기업경영자 서베이)를 기초로 한 평점을 부여한 것 등 2가지가 있음

□ WEF의 평가에 의한 일본의 이노베이션 능력

- 이노베이션 WEF의 순위는 전 구성항목(이노베이션 능력, 과학연구기관의 질, 기업의 연구개발비지출, 선진제품에 대한 정부조달, 과학자·엔지니어의 이용가능성, 특허출원건수)에 대한 기업경영자 조사에 의한 평가로 되어있음
- 이와 관련된 질문중 「자국 기업이 어떻게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가」 하는 질문에 대하여, 과거에는 일본경영자들의 대다수가 라이선스 취득이나 해외기업의 모방보다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
 - 즉 일본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의해 기술을 획득하고 높은 기술력에 의해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일본의 경영자들 사이에 침투되고 있었음
-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일본식의 기술개발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되면서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있음
- 이 점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는 질문내용을 「자국 기업이 어느 정도 이노베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」 하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음

- 이에 일본의 응답 기업들은 별로 이노베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결과 이노베이션 능력 순위가 급속히 저하
- 이는 이노베이션력에 대한 일본 경영자들의 자신감 결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.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비즈니스의 세련도에 대해서는 일본 경영자들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

□ GII의 평가에 의한 일본의 이노베이션 능력

- 한편 이노베이션 순위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로는 미국 코넬대학교, 유럽최고 권위의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(INSEAD), WIPO(세계지적소유권 기구)가 공동 작성·발표하고 있는 GII(Global Innovation Index)가 있음
 - GII에서는 5개의 투입항목(제도, 인적자본·연구개발, 인프라, 시장의 침투도, 비즈니스의 세련도)과 2개의 산출항목 지식·기술면의 산출, 창조적 산출) 총 7개의 항목을 선정하고, 산출항목의 스코어를 투입항목의 스코어로 나눈 수치를 「이노베이션 효율성 (Innovation Efficiency ratio)으로 정의
 - 일본의 GII 순위를 보면 WEF의 순위에 비하여 낮지만 아베내각 출범이후 2013~2016년에 걸쳐 GII, 투입항목, 산출항목 모두 높아짐
 - 특히 일본의 약점으로 알려진 매우 낮은 이노베이션 효율성도 높아져 순위를 높여 가고 있음
 - 이렇게 GII 평가에 관한 한, 일본의 이노베이션력은 착실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□ 시사점

- 일본의 경우 WEF의 평가에 의한 이노베이션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GII의 평가에 의한 이노베이션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음
 - 이는 그만큼 기업경영자들이 이노베이션에 대하여 보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는 근거를 제공
- 많은 나라들이 성장전략이나 과학기술정책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그러나 실제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기업들인 만큼, 그 주역인 기업 경영자들이 자신감 결여는 이노베이션 침체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
- 따라서 기업들의 의식개혁, 자신감회복 그리고 행동력이 요구되고, 관련 정책 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